

「儒敎와 人權」 강의를 위한 예비적 고찰

최재목*

I. 들어가는 말

본고는 「유교(儒敎)와 인권(人權)」 강의를 위한 예비적 고찰에 해당하며, 전문적 논의를 위한 하나의 시론(試論)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유교와 인권」과 관련한 강의가 법학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 만들어진 마땅한 교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유교와 인권」 관련 기초 자료를 수집, 정리하며 「유교와 인권」이라는 강의 교재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밝혀둔다.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유교(儒敎)¹⁾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교수

- 1) 여기서는 유학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보통 유학(儒學), 유교(儒敎), 유가(儒家)는 구별되어 사용된다. 즉, 「유가(儒家)」라는 말은 전국시대의 도가, 묵가, 법가와 대비되는 용법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학파와 대립 개념으로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다. 즉, 한대(漢代) 초기의 유가는 극히 정치적인 색채를 띤 도가(道家)인 황노학파(黃老學派)와 대립하였다. 하지만 무제(武帝)가 유교를 국교(國敎)로 정한 이후에는 유가와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사상집단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후한 말 동란의 발생으로 분열기에 접어들면서 유가는 다시 노장사상, 불교사상과 대립하게 된다. 그러나 유가는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한다. 당대 중기부터 불교를 의식한 끝에 유가는 다시 각광을 받는다. 이후 송대를 통해 불교와의 대항 관계에서 벗어나 인간을 사회적 존재(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실현해야 할 존재)로 파악하려는 유가 본연의 자세를 깨닫게 된다. 「유교(儒敎)」라고 할 때는 (1) 「유(儒)의 가르침(敎)」, 즉 윤리적·정치적 규범 혹은 교설·교리의 뜻이 되어 사람들을 억누르는(억압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2) 「종교적」(종교가 아니고) 성격도 풍긴다. 사실 한 대의 유교에는 신비적이고 주술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종교화되었다(혹은 종교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본에서는 보통 유교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이 경우에도 주로 (1)의 뜻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1)과 (2)의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2)쪽이 강하다. 「유학(儒學)」이란 말은 유교의 전통적인 고전(古典)을 공부한다(즉 탐구한다)는 성격이 짙다. 「학(學)」이란 말에는 합리성, 객관성, 논리성, 체계성 등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고전 즉 연구학습의 대상으로 삼는 문헌이 진리(道) 자체임을 전제하고 인정하고 나서 성립한 것이다. 여기서는 종교적이라는 뜻보다는 성현의 진리를 담고 있는 문헌을 연구·학습한다는 학문성의 의미가 강하다. 한국에서는 보통 유교라는 말보다는 유학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러나 성균관을 중심으로, 혹은 민간에서도 유학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동아시아의 전통 문화 대 서양문화’의 대결, 교류와 대화, 계몽과 연대 등의 복잡한 문맥을 갖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 유교(儒敎)의 여러 내용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주제는 최근의 연구 경향으로서 ‘유교와 생태, 유교와 인권, 유교와 종교다원주의, 유교와 여성’과 관련한 것이다. 그런데, 유교와 인권에 대한 연구는, 중국의 개혁과 개방,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하여 다른 세 가지 주제(인권, 종교다원주의, 여성)와 더불어 많은 축적을 거듭해 왔다.²⁾ 더욱이 인권의 문제는 중국 등의 사회체제와 관련하여 앞의 주요 주제들 가운데서 가장 뜨겁게 논의가 진행되었다.³⁾

유교와 인권 논의는 결국 다음의 두 가지로 크게 요약된다.⁴⁾ 즉 ① 원래 인권 개념은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사회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유교와 인권은 무관하다는 주장, ② 유교의 인권 개념은 『논어』와 『맹자』에 이론화 체계화 되지는 않았지만 초보적, 맹아적 형태로 이미 들어 있는 것이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만큼 인권사상에 기초한 법 개념의 설정이 필요하므로 그 방법론을 서양에서 배워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유교와 인권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권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인권은 법에 의해 규정된 의무 내지는 법에 의해 규정되고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거부 또는 항거하는 행동을 하는 힘이다. 인권은 여섯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개인적인 권리(personal right), 둘째. 정치적인 권리(political right), 셋째. 시민의 권리(civil right), 넷째. 경제적인 권리(economical right), 다섯째. 사회적인 권리(social right), 여섯째. 문화적인 권리(cultural right). 최근에는 여기에 ‘영적(靈的) 안녕을 위한 권리’를 포함시킨다. 이런 권리의 개념들은 자연적·천부적 권리(natural right)와 법적권리(legal right)로 구분할 수 있다. 천부적 권리는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할 경우 법적 권리로 구체화된다. 천부적 권리는 하나의 철학적 문제이다. 이에 반해, 법적 권리는 구체적인 것일 뿐 아니라, 서구사회에서 지난 이삼백년간 축적된 역사의 산물이다. 법적 권리로서의 인권의 개념은 분명히 서구사회에서 형성된 것이다. 법적 권리의 개념이 천부적 권리에 그 바탕을 두는 것이라면 동서의 교감이 가능하지만, ‘천부적 권리라는 개념은 하나의 가상일뿐이고 오로지 법적권리만이 인권문제의 전부’라고 이야기한다면 인권이란 완전히 서구의 개념이 될 것이다.⁵⁾

을 종교로서 보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이에 대한 주된 연구는 ‘참고문헌’을 참조바람.

3) 이에 대해서는 김승혜, 「한국유교 연구의 새지평」, 『韓國宗教研究』 권4, (서강대학교 종교학연구소, 2002)를 참고할 것. 아울러 유교와 인권 관련 주요 자료는 본고의 참고문헌을 참고바람.

4) 김승혜, 위의 논문 참조.

5) 김승혜, 위의 논문 참조.

그렇다면, 동아시아, 특히 유교에서는 과연 인권개념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가? 그것이 서구의 인권 개념과 어떻게 같고 다른가? 그리고 만일 없다면 왜 없으며, 유사 개념 또한 없는가? 이 강의에서는 이런 등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 『儒敎와 人權』 강의의 목적과 내용

1. 강의의 목적

유교와 인권 강의의 목적은, 유교(儒敎, confucianism)와 인권(人權, 인간의 권리, human rights)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① 유교에 대한 소양과 더불어 ② 유교에 포함된 인권 개념 혹은 인권 관련 도덕규범들을 파악하고, ③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서구적 인권 개념의 기원, 전개 내용과 대비·비교적으로 논의하여, ④ 우리 사회 속의,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맞물린 동아시아권 및 서구사회 사이에서 빚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 안목을 기르는데 있다.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국제사회 속의 정치적 역할의 증대, 국제관계의 활성화 속에서 부각되어 ‘유교자본주의’, ‘유교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오는 등, 아시아적 가치관(Asian values), 아시아의 전통문화가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동아시아 내외에서 ‘유교’(儒敎, confucianism)가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다.

유교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체의 가치체계, 문화심리구조를 대표하면서 서구의 기독교주의(Christianism)에 대항할만한 사상으로서 부각되어, 동아시아=유교권, 서구=기독교권 식으로 문화가 분할된다. 더불어, 유교가 ‘아시아적’-‘전근대적’인가, 아니면 세계와 호흡할 법사상의 기반이나 규범을 가진 ‘국제적(보편적)’-‘근대적’인가도 화두가 된다. 더욱이 중국의 개방화, 국제화와 더불어 그동안 표면화되지 않았던 ‘인권’(human rights) 문제가, ‘유교와 생태’, ‘유교와 종교다원주의’, ‘유교와 여성’과 관련하여 부각, 논의되어 온 것이다.

‘인권’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서구에서 기원하여, 근대기 일본에서 ‘인권’이란 번역어(=日本漢語)가 탄생하고, 이후 근현대를 거치면서 동아시아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 사회에 확산되어 보편화된 것이다. 일본한어의 ‘人權’은, 비록 서구의 ‘human rights’ 개념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그렇긴 해도, 서구의 ‘human rights’ 개념과 ‘유사 개념’, 혹은 ‘유사 도덕규범들’이 유교에, 구체적으로는 공자의 『논어(論語)』나 맹자의 『맹자(孟子)』 등의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것은

‘인정(仁政)’이라는 정치사상의 형태로서 체계적인 전개를 보이기도 한다.

2. 강의의 주요 내용

「유교와 인권」 강의에서는 다루어질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교와 인권 관련 자료 및 강의에 대한 기본 안내
2. ‘유교’, ‘아시아적 가치’의 현대적 의미
3. 서구의 ‘human rights’ 개념의 기원과 전개
4. 번역어=일본한어(日本漢語)로서의 ‘人權’ 개념과 그 동아시아적 유포
5. 동아시아의 ‘인간에 대한 관점(=人間觀)’과 ‘인(人)’과 ‘민(民)’의 구분
6. ‘권(權)’의 의미와 ‘사람(人)’-‘백성(民)’에 부여된 기본권의 이론적 근거
7. 동아시아 유교 속의 ‘유사 인권 개념’ 혹은 인권 관련 ‘도덕적 규범’의 구체적 예들(1): 중국 편
8. 동아시아 유교 속의 ‘유사 인권 개념’ 혹은 인권 관련 ‘도덕적 규범’의 구체적 예들(2): 한국 편
9. 동아시아 유교 속의 ‘유사 인권 개념’ 혹은 인권 관련 ‘도덕적 규범’의 구체적 예들(3): 일본 편
10. 동아시아 유교 속의 ‘인정(仁政)’의 정치사상(1): 중국편
11. 동아시아 유교 속의 ‘인정(仁政)’의 정치사상(2): 한국편
12. 동아시아 유교 속의 ‘인정(仁政)’의 정치사상(3): 일본편
13. 동아시아 유교 속의 정치적 권리, 시민권의 주장 여부
14. 유교와 인권의 실제(역사적 실례를 통한 사례해결방식 검토- 특히 현대법과의 관련 속에서)

「유교와 인권」 강의는 위와 관련한 최소한의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되, 이외에는 주로 문답=대화를 통해서 수강생이 자발적으로 개념에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며, 가능한 한 역사적 실례를 통한 사례해결방식(case method)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위의 1-14를 9가지로 축약하여 각각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설명해두기로 한다.

① ‘유교’, ‘아시아적 가치’의 현대적 의미

‘유교’하면 흔히 ‘봉건적’ ‘계급적’ ‘남녀차별 · 불평등’ ‘남아선호’ ‘제사’ ‘혈연’ 등의 전근대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래서 유교=아시아적 가치를 전근대적인 것으로 폄하하거나 현대로 이행하는데 ‘짐’이 되는 청산할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유교에는 인권이라는 개념이나 의식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에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① ‘유교(儒敎)’란 무엇인가?를 ‘유(儒)’⁶⁾, ‘유교(儒敎)’, ‘유학(儒學)’, ‘유가(儒家)’의 개념, 유가사상의 전개과정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면서, 아울러 ② ‘유교자본주의’, ‘유교 르네상스’의 배경과 ‘아시아적 가치’의 현대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면서 그 내용들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⁷⁾ 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근대, 현대와 어떻게 접목이 되고, 아울러 어떻게 이 시점에서 재평가해야 하는가는 ‘유교와 인권’ 강의의 초반부에 필수적으로 논의해야 할 일이다.

② 서구의 ‘human rights’ 개념의 기원과 전개

여기서는 우선 ① 서구의 ‘human rights(인권)’ 개념과 그 기원을 살펴보고, 이어서 ② 서구의 ‘인권’ 개념의 전개와 그 내용을 연대기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즉, 근대적 개념으로서 ‘인권’ 개념이 세계사에서 일반화된 과정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서구에서 추상적 개념으로서 이해되어왔던 ‘인권’에 대한 기본권 사상은 영국의 ‘인권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헌장(마그나카르타, 1215년), 권리청원(1628년), 인신보호법(1679년)을 비롯한 미국의 독립선언(1776년),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1789년) 등의 세계적 변혁기를 겪는 동안 홉스, 로크, 루소 등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7세기에 이르러 ‘인간의 권리는 양도될 수 없으며, 이는 국가도 침해할 수 없다.’는 기본권 사상의 정립은 17세기에 이르러 이루어진다. 그 이후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인권사상

6) 『說文解字』를 비롯한 여러 字典을 보면 유(儒)는 유(柔), 유(濡), 윤(潤)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유(柔)는 부드럽다는 뜻이고, 유(濡)는 스며들다 · 젖다의 뜻이고, 윤(潤)은 (물에 젖어) 분다 · 윤택하다는 뜻이다.((성균관대)유학주입교수실, 『유학사상』,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1), 11쪽과 조남욱, 『현대인의 유교읽기』, (서울: 아세아 문화사, 2005), 18쪽 참조). 이것은 아마도 유(儒)라는 집단이 사람[人]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필수적[需]인 冠婚喪祭의 禮(특히 喪禮와 祭禮)를 전승하고 관장하거나, 가문 등에서 비를 부르며 점술에 능한 전문가 그룹을 말한 것 같다. 禮를 관장할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沐浴齋戒를 하였거나 또는 비 등의 물을 부르는(비는) 행위와 관련되었기에 ‘물(水)’의 의미와 연관되고, 나아가서 ‘닦다’의 의미인 修 자가 몸(己/身)이나 도(道)에 활용되어, 修身, 修己, 修道와 같은 용어들이 형성되어 고전에 정착하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7) 이 부분의 주요 참고 자료는, 평유란, 『간명한 중국철학사』/余英時, 『동양적 가치의 재발견』/양적, 『인륜과 자유-중국과 서양 인간관의 충돌과 전도』/이동희, 「동아시아적 컨텍스트와 인권 그리고 보편윤리」/Wm. Theodore de Bary, Aslan Values and Human Rights - A Confucian Communitarian Perspective/Wm. Theodore de Bary & Tu Wei-ming, Confucianism and Human Rights/(성균관대)유학주입교수실, 『유학사상』/조남욱, 『현대인의 유교읽기』 등이 된다.

과 제도로써 확립된다. 이러한 전통에 근거하여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이로 해서 인권사상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선언이자 국제법적 실체가 되었다. 이렇게 이루어진 인권의 실질적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한다. 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는 국가나 실정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 아니며,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모든 생득적이고 절대적인 기본권을 말한다.⁸⁾ 이러한 일련의 논의 속에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는 ‘인권의 ‘보편성의 근거’를 파악해낼 수 있다.⁹⁾

③ 번역어=일본한어(日本漢語)로서의 ‘人權’ 개념과 그 동아시아적 유포

서구의 ‘human rights(인권)’ 개념은 근대기 일본을 통해 번역되어 한어(漢語)(이것을 일반적으로 ‘일본한어’라고 한다)로서 번역되어 동아시아사회로 유포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번역어=일본한어(日本漢語)로서의 ‘人權’ 개념의 탄생과 번역 당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등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번역어 ‘인권’ 개념의 동아시아 사회(중국, 한국)로의 유포 경로나 상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⁰⁾ 이것은 우리가 인권 개념에 접해 온 역사를 더듬는 것이며, 유교와 인권에 대한 논의의 좌표를 주체적으로 짚어보는 것이기도 하다.

④ 동아시아의 ‘인간에 대한 관점(=人間觀)’과 ‘인(人)’과 ‘민(民)’의 구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human, man, 人, 人間, 民, 人民 등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어원적(語源的)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중국사상사에 보이는 ‘인간에 대한 관점(=人間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특히 주목해볼 일은 ‘인(人)’과 ‘민(民)’의 구분이다. 『논어』 등에 쓰이는 ‘인’은, 일반적으로 ‘사람다움(人)’¹¹⁾, ‘사람(혹은 남)을 사랑함(愛人)’¹²⁾이라고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구체적 직위를 가진 신분 높은 자이다. 이에 비해 ‘민’은 그들(人)의 부림을 당하는 하층민(무지한 존재·반항적인

8) 한국인권재단,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2000), 694-696쪽 참조.

9) 이 부분의 주요 참고 자료는, 조효제, 『인권의 문법』/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인권이란 무엇인가?』/한국인권재단,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한상진 편, 『현대사회와 인권』/이승환,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이승환, 「인권」/石塚正英·柴田隆行, 「人權·人間の權利」/이동희, 「동아시아적 권 텍스트와 인권 그리고 보편윤리」 등이다.

10) 이 부분의 주요 참고 자료는 丸山眞男·加藤周一, 『번역과 일본의 근대』/야나부 아키라, 「권리」/柳父章, 『翻譯語成立事情』/鈴木修次, 「三權分立にまつわる用語」/石塚正英·柴田隆行, 「人權·人間の權利」/山室信一, 「アジアにおける思想連鎖」/後藤靖, 『自由民權』/高坂史郎, 『近代という躰』/정용화, 「유교와 인권: 유길준의 ‘인민의 권리’론」 등이다.

11) 『중용』 제20장에는 「인은 사람다움이다(仁者, 人也)」라고 있다.

12) 『논어』 「顔淵」에서는, 번지가 인(仁)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는 ‘사람(혹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樊遲問仁, 子曰, 愛人)라고 언급하였다.

존재·비천한 존재)¹³⁾이다.

(『논어』에서 말하는) ‘사람(人)’은 신분 있는 상층 계급을 가리킨다. 공자는 일반서민을 ‘백성(民)’이라 부르며 『논어』의 여러 부분에서 사람(人)과 백성(民)을 구별하였다. “백성은 시켜야 하며 알게 해서는 안 된다(子曰, 民可使由之, 不可使知之).”(『논어』「泰伯」)는 유명한 구절에서도 공자는 ‘사람(人)’이 아니라 ‘백성(民)’이라고 하고 있다. 즉 도덕정치의 기본 사항을 서술한 경우, 위정자를 ‘사람(人)’이라고 부르는데 반해 위정자에 의해 무상노동에 동원된 농민을 ‘백성(民)’이라고 부르는 등 지극히 명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한 실례를 발견할 수 있다(『논어』「學而」).¹⁴⁾ 이러한 사실에 유의하면서 공자의 많은 발언을 재검토해보면, 일반적으로 무지한 존재·반향적인 존재·비천한 존재 등을 지칭하는 의미로 대중을 가리킬 때에는 ‘백성(民)’이라고 표현한 경향이 현저함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愛人)’이라고 규정된 인(仁)의 본질을 보편적 인간애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솔한 해석임을 알 수 있다. 공자의 진의는 신분 높은 자들 상호 간의 도덕에 대해 이야기 한 것임이 분명하다.¹⁵⁾

따라서 중국의 인권을 설명하기에 앞서 인(人)과 민(民)의 개념 구분을 포함하여, 《사서(四書)》와 주렴계(周濂溪, 이름은 惇頤, 1017~1073)의 「태극도(太極圖)」·「태극도설(太極圖說)」 등을 통한 인간관에 대한 검토가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인권, 민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유사한 것이 있었는지를 『설문해자(說文解字)』 등을 통한 문자론적 파악이 필요하다.¹⁶⁾ 예컨대, 도가 계열의 서적인 『열자』라는 책에 단적으로 나오듯이, 유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남녀 간의 차별을 주장하는 점도 살펴보

13) 중국 고대에는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희생으로 하거나 신의 노예로 삼는 풍습이 있었다. 자원에 따르면, 보통 그들은 ‘바늘로 눈을 찔러 실명한 존재’이다. 이렇게 눈이 찔려 보이지 않는 데서, ‘無知, 하층민, 노예’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그들은 당연히 윗사람이 시킨 일박에 할 수 없는 존재였고, 이후 이런 습관들이 굳어져서 백성은 천한 신분을 타고 나며 눈 먼 사람(무식자)이라는 생각이 보편화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예컨대, **반대 의견의 예**는 <http://www.hanja.co.kr/html/letter/hanja79.htm>를 참고바람).

14) 즉, 「공자가 말했다. “千乘의 나라(=諸侯國)를 다스리되, 일을 공경하고 믿게 하며, 쓰기를 절도있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백성을 부리기를 때(=농한기)에 맞춰서 하여야 한다(子曰,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에서처럼 위정자를 人으로 무상노동에 동원된 농민을 民으로 하고, 民은 人이 부리는 존재로 부각된다.(윤진이 주)

15) 시계자와 도시로, 『역사 속에 살아 있는 중국 사상』, 이해경 옮김, (서울: 예문서원, 2003), 17쪽.

16) 이 부분의 주요 참고 자료는 『說文解字』/「太極圖」, 「太極圖說」/『聖學十圖』/《四書》/石塚正英·柴田隆行, 「人權·人間の權利」/이승환,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이승환, 「인권」/시계자와 도시로, 『역사 속에 살아 있는 중국 사상』 등이다.

아야 한다.

나의 즐거움은 매우 많다. 하늘이 낳은 것 중에서 오직 사람을 귀한 것(=萬物の 靈長)으로 여기는데, 나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쁨이다. 인간에게는 남녀의 구별이 있는데, 남자는 (신분이) 높고 여자는 낮다(男尊女卑). 그래서 남자를 귀하게 여긴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다. 이것이 두 번째의 즐거움이다.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해와 달을 보지 못하고 강보(=포대기)를 벗어나지도 못하는 자가 있다. 나는 이미 살아온 해가 구십이다. 이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¹⁷⁾

유교를 거론할 때 항상 지적되는 여성차별적인 점(남이존중을 근간으로 하는 孝, 祭祀 등)에 대해서도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비판적으로 논의를 해보아야 한다.

⑤ ‘권(權)’의 의미, ‘사람(人)’-‘백성(民)’에 부여된 기본권의 이론적 근거

여기서는 ‘권(權)’이란 글자의 본래 뜻, 용례,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사람(人)’-‘백성(民)’에 부여된 기본권의 이론적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다만, 유교에는 ‘人權’ 또는 ‘權利’라는 개념이 없다고 해서 동양에는 인권이나 권리가 없다는 식으로 논의해가는 것은 너무 순진하거나, 유교의 구조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평면적 접근임에 틀림없다.¹⁸⁾ 유교에서 현대의 인권, 권리에 해당하는 개념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고, 또 그 제약과 근거는 무엇인지가 보다 세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유교가 절대 개인보다도 인륜성, 관계성과 같은 공동체에 보다 높은 가치를 두어온 경향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서양에서는 ‘절대 개인’을 상정하고 개인과 그 자유의 획득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목표로 해 왔다. 이에 비해 유교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라는 관계(人間)¹⁹⁾를 설정하고 그 자타의 관계성을 정립 즉 인륜(人倫)을 목표로 해왔다.²⁰⁾ 중국에서 ‘판시’라고 발음하는 ‘관계’라는 말은 원래 일본에서 만들어져, 중국 등지로 유포된 것이다. 유교에서 사용하는 오륜

17) 吾樂甚多，天生萬物，唯人爲貴，而吾得爲人，是一樂也，男女之別，男尊女卑，故以男爲貴，吾既得爲男矣，是二樂也，人生有不見日月，不免襁褓者，吾既已行年九十矣，是三樂也。(『列子』「天瑞」).

18) 이에 대해서는 이승환, 「유가(儒家)윤리에 ‘권리’ 개념이 있었는가?」, 『철학』 Vol.49 No.1, (한국철학회, 1996)를 참고.

19) 이것에 주목한 책으로는 와쓰지 데쓰로, 『인간의 학으로서의 윤리학』, 최성목 옮김, (대구: 이문출판사, 1995)가 있다.

20) 이 부분의 주요 참고 자료는, 와쓰지 데쓰로, 『인간의 학으로서의 윤리학』/양적, 『인륜과 자유-중국과 서양 인간관의 충돌과 전도』/최석만·최영진 외, 『탈현대와 유교』/최재목, 「‘자연’에 대한 왕양명의 시선」/평유란, 『간명한 중국철학사』/李雲九, 「한자문화권에 있어서 남녀 평등의식의 변천」 등이 다.

(五倫), 윤상(倫常)의 윤(倫)²¹⁾은 기본적으로 ‘인륜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개인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人間)을 전제로 하는 유교에서는 결코 절대적인 개인, 인간관계를 넘어서, 그에 선행하는 권리,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개인의 영역이란 있을 수 없다. 서구의 인권사상을 비롯한 삼권분립,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최소국가주의, 인권의 절대화 등의 제도와 가치들은 국가와 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유교(송명시기 및 그 이후에 전개하는 性理學-朱子學 포함)의 세계관은 인간의 이성(本然之性, 善性, 明德)을 통하여 객관적이고도 도덕적인 지식을 터득하여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지식인층, 지도층이 형성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²²⁾ 이러한 인간 및 사회에 대한 낙관주의, 이상주의, 도덕주의가 유교의 기본이었다. 여기서는 법치주의보다는 덕(德) 윤리나, 도덕주의적 경향, 그리고 개인의 권리보다는 관계-공동체 속에서는, 오륜(五倫)에 보이듯이 부자(父子) · 부부(夫婦) · 군신(君臣) · 장유(長幼) · 붕우(朋友) 사이의 친(親) · 별(別) · 의(義) · 서(序) · 신(信)과 같은, ‘-이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다워야 한다’는 이른바 당위 · 의무 개념이 발달하였다. 이것은 개인이든 사회이든 마찬가지였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유교와 인권』 강의에서는 ‘권(權)’의 의미, ‘사람(人)’-‘백성(民)’에 부여된 기본권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²³⁾

21) 「륜(倫)」은 자의(字義)로 볼 때, 사람(人)[=人]과 륜(倫)자의 결합으로 생긴 것이다. 륜(倫)은 책[冊: 대나무 패(=竹簡)]과 그것을 덮은 글자, 즉 합(合)자에서 입 구(口)가 빠진 모양인 「모오다」는 의미를 드러내는 글자가 합성된 것이다. 그래서 륜(倫)은 「대나무 패를 가지런히 정리해 놓은 모습」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륜(倫)」은 사람 인(人) 변이 있는 것에서 「질서가 잘 잡힌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동시에 륜(倫)은 「무리」를 뜻하는 류(類), 배(輩), 군(群)과도 통한다. 무리가 있으면 관습, 습관, 습속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질서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사실 「륜(倫)」자는 이미 그 자체로서 조리(條理), 이법(理法)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고향(故鄕)의 향(鄕)은 읍(邑)+ 경(卿)의 약체(略體)이다. ‘읍(邑)’= 阜(우부방(右阜旁))은 ‘편안히 앉아 쉬는 사람’을 형상한 데서 ‘사람이 무리 지어 모여 사는 곳(지역)=마을’을 의미하게 되었다. ‘서로 마주하여서 소리[音]나 연기[煙]가 서로 오고가는 마을’¹⁾을 상상하면 된다.(향(向: 향하다)-향(香: 냄새가 맞은편 쪽으로 향하다)-향(響: 소리[音]가 맞은편으로 움직이다)는 같은 계열의 말이다.) ‘경(卿)은 「잘 차린 음식(식사)=(飪)+ 서로 마주한 사람」에서 성립한 회의문자(會意文字)로 ‘회식(會食)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모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최재묵, 『얼고도 낮선 동양』, (대구: 이문출판사, 2004), 29쪽을 참고).

22) 이에 대해서는 함재봉, 「유교 전통과 인권사상」, 『계간 사상』 Vol.31 No.1, (사회과학원, 1996) 참조.

아울러, 유교의 인간관에 대해서는 赤塚忠 · 金谷治 외, 『중국사상개론』, 조성을 옮김, (서울: 이론과 실천사, 1987) 속의 「IV. 인간관」 부분(161-304쪽)과 加地伸行, 『유교란 무엇인가?』, (서울: 지영사, 1993)을 참조.

23) 이 부분의 주요 참고자료는 柳父 章, 『翻譯語成立事情』/鈴木修次, 「三權分立にまつわる用語」/石塚正英·柴田隆行, 「人權·人間の權利」/이승환,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함재봉, 「유교 전통과 인권사상」/이승환, 「유가(儒家)윤리에 ‘권리’ 개념이 있었는가?」/裴傳英, 「簡論孔子의 人權思想」/陳啓智, 「儒家의 人權思想」/이동희, 「동아시아적 컨텍스트와 인권 그리고 보편윤리」/Wm. Theodore de Bary, *Asian Values and Human Rights - A Confucian communitarian Perspective*/Wm. Theodore

⑥ 동아시아(중국한국일본) 유교 속의 ‘유사 인권 개념’ 혹은 인권 관련 ‘도덕적 규범’의 구체적 예들

동아시아 유교 속의 ‘인권 혹은 유사인권 개념’ 혹은 인권 관련 ‘도덕적 규범’의 구체적 예들을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의 이른바 동아시아 사상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는 공자, 맹자를 비롯하여 근대기 인물까지, 한국의 경우는 이퇴계(李退溪), 이율곡(李栗谷), 정다산(丁茶山) 등의 주요인물을 포함한 근대기 유교 인물까지, 일본에서도 이등인재(伊藤仁齋), 웅택번산(熊澤蕃山), 적생조래(荻生徂徠) 등의 이른바 주자학(朱子學), 양명학(陽明學), 고학(古學)의 주요 인물을 포함한 근대기 유교 인물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퇴계가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머슴에게도 자신의 강의를 들을 기회를 준 것, 그리고 자기 손자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지 6개월만에 다시 아이를 잉태하여 젖이 끊겨 증손자가 죽어가고 있어 젖먹이가 딸린 본댁 유모(乳母)의 젖을 받아먹고 싶어 했지만 그러지 말도록(유모의 자식이 그 때문에 굶어죽을 염려가 있으므로) 손자에게 충고한 것 등²⁴⁾은 우리나라의 유교에서 보이는 ‘인권(혹은 유사 인권) 개념’의 한 예이기도 하다.

de Bary & Tu Wei-ming, *Confucianism and Human Rights*/『說文解字』 등이다.

24) 이 이야기는 흔히 알려진 것으로 특히 정비석, 『退溪逸話選』, (퇴계학연구원, 1977)과 강재철, 「退溪先生逸話資料選」, 『국문학논집』 제19집, (檀國大學校國語國文學科, 2003)을 참고바람.

참고로 이 이야기를 풀어서 실으면 다음과 같다.

「손자인 안도(安道)가 아들 창양을 데리고 성균관에 유학하고 있을 때다. 창양이 출생한지 6개월만에 손자 며느리가 딸을 잉태하여 젖이 끊기게 되었다. 오늘과 같이 우유로 아이를 키우는 시대가 아니었으므로 아기를 키우기가 매우 힘들었고, 창양은 영양실조로 별별 병을 다 앓았다. 그래서 도산 본댁에 유모를 구해 보도록 부탁하였다. 마침 딸 낳은 여자 종이 있어서 아기를 떼어놓고 서울로 올라오도록 일을 추진하고 있을 때 퇴계가 그 김새를 알 게 되었다. 시어른의 엄한 법도를 알면서도 미리 아뢰지 않은 것은, 창양을 출산했을 때 '우리 집에 이 보다 더한 경사가 없다.'라고 기뻐하였으므로 증손자를 위한 다면 어떤 일이든 묵인해 주리라 믿고 나중에 알리려고 하였던 것이다.

퇴계는 이 일을 알고 엄히 꾸짖고 중지시키고 『근사록』의 말을 인용하면서 편지를 썼다. "몇 달 동안만 밥물로 키운다면 이 아이도 키우고 서울 아이도 구할 수 있다. 어린 아이를 떼어놓고 가는 그 어미의 마음은 오죽하겠으며 서울까지 가는 동안에 이 아이는 죽고 말 것이고 젖도 막히게 될 것이다. 내 자식을 키우기 위해 남의 자식을 죽일 수는 없다. 어미가 자식 키우는 정은 짐승도 마찬가지인데 학문을 한다는 유가의 체통으로 차마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더냐! 몇 달을 참으면 두 아이를 다 구할 수 있으니 여기 아이가 좀더 자랄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그 때 가서 데리고 가도록 하마."하고 손자를 타일렀다.

그 후 겨울과 봄은 어렵게 넘겼지만 창양은 증조부를 보지도 못한 채 1570년 5월 23일 죽고 말았다. 퇴계는 그 아픔을 가족들에게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으나, 여러 문인들에게 아픈 심정을 여러 번 토로하였다.

퇴계의 인간 평등사상은 당신의 증손자를 잃으면서까지 하인의 딸을 살렸고, 어미가 자식을 키우는 사랑과 천륜은 사람의 귀천에 차별이 없음을 행동으로 가르쳐 주었다.」

⑦ 동아시아(중국·한국·일본) 유교 속의 ‘인정(仁政)’의 정치사상

유교에서 인간의 존엄성, 인간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개념은 인(仁)이다. 사람[人] + 둘[二]의 합자로서²⁵⁾ ‘사람다움(人)’, ‘사람(혹은 남을)을 사랑하는 것(愛人)’으로 표현되는 인은 인간중심, 인간 존중을 집약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²⁶⁾ 공자에서 논의되는 인은 이후 맹자에서 의(義)와 결합하여 인의(仁義)로 주로 쓰인다.

『맹자』의 첫 구절에는 다음과 같이 있다.

맹자가 양나라의 혜왕을 만났는데, 양나라 혜왕이 말하기를 『선생께서 천리 길을 멀다 아니하고 와 주셨으니 장차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롭게 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맹자가 『임금님은 왜 하필 이익[利]을 말씀하십니까? 인의(仁義)가 있을 따름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²⁷⁾

즉, 맹자는 국가나 개인의 이익[利]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인의(仁義)의 덕목에 바탕한 ‘인정(仁政)’이나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정이나 왕도정치의 이상은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기본이기는 하지만, 중국, 한국, 일본의 세 지역의 사상가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유교 속의 ‘인정(仁政)’의 정치사상의 예들을 동아시아 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²⁸⁾

여기서는 위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우는 공자, 맹자를 비롯하여 근대기 인물까지, 한국의 경우는 이퇴계(李退溪), 이율곡(李栗谷), 정다산(丁茶山) 등의 주요인물을 포함하여 근대기 인물까지, 일본에서도 이등인재(伊藤仁齋), 웅택번산(熊澤藩山), 적생조래(荻生徂徠) 등의 이른바 주자학, 양명학, 고학의 주요 인물들과 근대기 인물까지 포함된다.

⑧ 동아시아 유교 속의 정치적 권리, 시민권의 주장 여부

25) 여기서 仁 자를 흔히 ‘두 사람(=하나의 사회) 사이의 이법, 원리’로 해석한다.

26) 그러나 人의 개념과 民의 개념에 대한 구별은 앞서 지적한대로 간과해선 안 된다.

27) 孟子見梁惠王，王曰，叟不遠千里而來 亦將有利於吾國乎，孟子對曰，王何必曰利，亦有仁義而已矣(「梁惠王」편)

28) 이 부분의 주요 참고자료는 陳志尙, 「儒家傳統 中國人權」/夏勇, 『中國民權哲學』/이승환, 「인권」/이승환,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함재봉, 「유교 전통과 인권사상」/이승환, 「유가(儒家)윤리에 ‘권리’ 개념이 있었는가?」/陳啓智, 「儒家的人權思想」/조경란, 「유교·민족·인권」/김호중, 「서애 유성룡의 인권사상 및 민주사상」/안옥선, 「원효 사상에 있어서 인권의 기초이념」/이동인, 「율곡의 사회개혁사상과 인권」/김용현, 「정약용의 민본의식과 민권의식」이 된다.

여기서는 인권에 관계되는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 시민권(civil rights)의 주장 여부를, 서구와 동아시아 유교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동아시아의 유교 속에 정치적 권리 주장이나 시민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²⁹⁾

⑨ 유교와 인권의 실체(역사적 실례를 통한 사례해결방식 검토 - 특히 현대법과 관련하여)

유교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유교와 인권」의 실례를, 유교 속에 존재하는 실례를 현대법과 관련하여 토의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한 두 가지 예만 들기로 한다.

예1) 아버지의 도둑질에 대해 자식이 법으로 처리할 것인가 인정으로 감싸 줄 것인가?를 두고 공자는 법보다 도덕, 가족윤리 쪽의 손을 들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⁰⁾

섭공(葉公)이 공자에게 「우리 마을에 정직한 자가 있으니, 그는 아버가 양을 훔친 것을 가서 고발하였소.」 라고 하니, 공자께서 「우리 고을의 정직은 이와 다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감추

29) 이 부분의 주요 참고 자료는 조효제, 『인권의 문법』/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인권이란 무엇인가?』/한상진 편, 『현대사회와 인권』/이승환, 「인권」/石塚正英·柴田隆行, 「人權·人間の權利」/이승환,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조경란, 「유교·민족·인권」/이동희, 「동아시아적 컨텍스트와 인권 그리고 보편윤리」이 될 것이다.

30) 이 이야기를 두고 『韓非子』에서는 공자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 내용이 나온다.(여기서는 직공을 사담으로 보았다.)

楚 나라에 直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직공은 자신의 아버지를 관청에 고발하였다. 그런데 楚나라의 재상은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직공을 사형하라!」고 명령하였고, 이에 직공은 사형되었다. 이렇게 초나라에서는 아래 계층의 하층은 나쁜 일들은 위에 들리지 않게 되었다. 魯나라에서 사람들이 세 번째로 전쟁에 내몰리자 도망치는 자가 있었다. 공자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나이는 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였다. 공자는 그 사람(도망간 사람)을孝라고 칭찬하여 내세웠다. 그 이후 魯나라에서는 수없이 많은 군대가 도망을 쳤다.

또한 이에 관한 다른 이야기가 『呂氏春秋』(전국시대 말기에 편찬된 일종의 백과전서)에 나온다.

楚나라에 直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직공은 자신의 아버지를 관청에 고발하였다. 그러자 관청에서는 직공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였다. 이 때 직공은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을 대신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버지가 죄를 범해서 그 아버를 고발한 것은 국법에 충실한 백성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사형에 집행되려 하자 이에 제가 대신할 것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효성스런 자식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법에 충실하고서 아버지에게 효도한 자를 사형한다면 나라 안의 사람들을 모두 사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초나라의 군주는 결국 직공을 석방하였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감추어주니 정직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31)

예2) 아울러 그리고 인정(人情)인가 의리(義理)인가를 두고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환공(桓公) 15년」 조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정(鄭) 나라 사람 제중(祭仲) 딸 옹희(翁嬉)는 그의 남편 옹규(翁糾)가 친정아버지를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이를 그(친정아버지)에게

	직공이 아버지를 고소한 것에 대한 찬반	찬반의 근거	출전
葉公	칭찬(찬성)	법은 가족 내부에까지 미침	『論語』
孔子	반대	법은 가족 내부에까지 미치지 않음	
楚나라의 재상	반대	법은 가족 내부에까지 미치지 않음	『韓非子』 『呂氏春秋』
후세의 법률	반대	법은 가족의 질서를 보호	

참고로 중국 고대에 사람을 구타, 상해한 경우 그 처벌은 어떠했을까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다.

『唐律』에 따르면 다음 표와 같다. 죄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구타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랬던 것 보다 훨씬 무거움을 알 수 있다.

	父母·先祖가 자식·자손구타 상해(○)	叔父母가 생질 구타 상해(○)	兄姉가 제매 구타 상해(○)	일반인이 일반인을 구타 상해(◎)
斬(목을 자름)형	●			
絞(목을 조름)형		●		
流三千里(먼곳으로 귀양보냄)형			●	
徒(징역) 일년형				◎
不論罪(무죄)	○	○	○	
	자식·자손이 부모 선조 구타 상해(●)	甥姪이 숙부모 구타 상해(●)	弟妹가 형자 구타 상해(●)	일반인이 일반인 구타 상해(◎)

(이 부분의 내용은 岡本光生, 『圖解 『論語』の知慧を身につける本』, (東京: 中經出版, 1999), 53쪽, 59쪽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임. 인용문의 원문은 생략)

31) 葉公語孔子曰, 吾黨有直躬者, 其父攘羊, 而子證之. 孔子曰, 吾黨之直者, 異於是, 父爲子隱, 子爲父隱, 直在其中矣. (『論語』 「子路」).

일러 바쳐 남편이 결국 죽음을 맞이한 내용이다. 의리로 맺어진 남편보다 혈연으로 맺어진 친정 아버지를 택하는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정(鄭) 나라 사람 재중(祭仲)이 나라의 정사(政事)를 마음대로 했다. 그러므로 정 나라의 왕 [鄭伯]이 이를 근심하여 재중의 사위인 옹규(翁糾)를 시켜 재중을 죽이라고 하였다. 옹규는 교외[郊]에서 연회를 베풀고 장인인 재중을 초청하려 하였다. 옹규의 아내인 옹희(翁媿, 재중의 딸이며 옹규의 아내)가 이를 알아차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물었다. “아버지와 남편 중 어느 쪽이 더 친합니까?” 그러자 그 어머니가 대답했다. “남자들은 모두 너의 남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일 뿐이다.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옹희는 마침내 아버지 재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 남편[翁氏]이 자신의 집을 놔두고 아버지를 교외[郊]에서 향응하려 하는데 이상스런 느낌이 들어서 고합니다.” 마침내 재중은 (그의 사위인) 옹규를 죽이고 그 시체를 주씨(周氏: 정鄭 나라의 대부大夫)의 연못에 버렸다. 정의 려공(厲公)이 그 시체를 수레에 실어서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 “기밀이 부인에게까지 미쳤으니 죽어 마땅하다.”

이와 같이 유교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예를 들어 이것이 현대법과 어떻게 연결되거나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III. 나오는 말

동아시아의 유교에서도 인권사상의 바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맹자(孟子) 등에서 보이는 인정(仁政)과 같이 인자한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 의식이 동아시아 유학자, 나아가서는 신유학(新儒學, Neo-confucianism)의 성리학자(性理學)들의 사상에서 폭넓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유교나 유교사회에서 단순히 정치사상으로 그치지 않고, 개인과 시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법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었는가, 어떤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유교에서 인권의 문제가 서구와 같지 않다고 해서 유교가 서구에 비해 열등하다거나 구시대적의 전근대적인 산물이라고 몰아부쳐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서구 문화의 평가 잣대로 동아시아 사회의 시비, 선악을 가려내는 것은 일종의 문화적 폭력이다. 다만, 유교와 서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유교 사회가 가진 장점들(공동체를 배려하는 개인의 책임의식 등)을 더욱 증진하는

형태로 인권 문제에 관련한 부족한 문제를 더욱 보완해 가는 노력을 적극 보일 필요가 있다.

근대기 동아시아 사회에서 서구의 근대 법제가 어떻게 정착하고, 그런 과정에서 유교적 사고와 생활방식이 서구 법제와 어떻게 불협화음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에서 유교와 인권 문제의 구체적 예들을 발견해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노력들은 앞으로 동아시아 사회와 서구 사회와의 교류, 협력, 대화를 위한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유교와 인권』 강의를 위한 이 예비적 고찰이 학생들과의 대화,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보완해 가서 하나의 단행본 교재로서 완성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I. 유교와 인권 관련 원전

1. 『論語』
 2. 『孟子』
 3. 『大學』
 4. 『中庸』
 5. 『說文解字』
 6. 『太極圖』, 『太極圖說』
 7. 『聖學十圖』
- (기타 생략)

II. 아시아적 가치, 유교 등

1. 余英時, 『동양적 가치의 재발견』, 김병환 옮김, 서울: 동아시아, 2007.
2. 양적, 『인륜과 자유—중국과 서양 인간관의 충돌과 전도』, 정병석 옮김, 부산: 소강, 1999.
3. 시계자와 도시로, 『역사 속에 살아 있는 중국 사상』, 이해경 옮김, 서울: 예문서원, 2003.
4. 최석만·최영진 외, 『탈현대와 유교』,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07.
5. 최재목, 『자연'에 대한 왕양명의 시선』, 『중국철학』, 이승환·이동철 엮음, 서울: 책세상, 2007.
6. 평유란, 『간명한 중국철학사』, 정인재 역, 서울: 형설출판사, 2007.

7. 와쓰지 데쓰로, 『인간의 학으로서의 윤리학』, 최성목 옮김, 대구: 이문출판사, 1995.
8. (성균관대)유학주임교수실, 『유학사상』,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1.
9. 조남옥, 『현대인의 유교읽기』, 서울: 아세아 문화사, 2005.
10. 와쓰지 데쓰로, 『인간의 학으로서의 윤리학』, 최성목 옮김, 대구: 이문출판사, 1995.
11. 赤塚忠・金谷治 외, 『중국사상개론』, 조성을 옮김, 서울: 이론과 실천사, 1987.
12. 加地伸行, 『유교란 무엇인가?』, 서울: 지영사, 1993.

III. 인권 일반

1. 조효제, 『인권의 문법』, 서울: 후마니타스, 2007.
2.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인권이란 무엇인가?』, 서울: 오름, 1995.
3. 한상진 편, 『현대사회와 인권』, 서울: 나남, 2003.
4. 한국인권재단,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서울: 사람생각, 2000.

IV. 유교와 인권, 정치적 권리, 시민권의 주장 등

1. 이승환,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2. 이승환, 「인권」, 『21세기의 동양철학-60개의 키워드로 여는 동아시아의 미래』, 이동철·최진석·신정근 엮음, 서울: 을유문화사, 2005.
3. 신동준, 『덕치 · 인치 · 법치』, 서울: 예문서원, 2003.
4. 資料集 生命倫理と法編集委員会, 『資料集 生命倫理と法』, 東京: 太陽出版, 2004.
5. Wm. Theodore de Bary, *Asian Values and Human Rights - A Confucian Communitarian Perspectiv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6. *Confucianism and Human Rights*, ed. by Wm. Theodore de Bary & Tu Wei-ming(Columbia Univ. Press, 1998), Preface.(여기에 많은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음)
7. 함재봉, 「유교 전통과 인권사상」, 『계간 사상』 Vol.31 No.1, 사회과학원, 1996.
8. 이승환, 「유가(儒家)윤리에 ‘권리’ 개념이 있었는가?」, 『철학』 Vol.49 No.1, 한국철학회, 1996
9. 裴傳英, 「簡論孔子の人權思想」, 『퇴계학』 Vol.12 No.1, 안동대학교, 2001.
10. 김호중, 「서애 유성룡의 인권사상 및 민주사상」, 『퇴계학』 Vol.12 No.1, 안동대학교, 2001.

11. 안옥선, 「원효 사상에 있어서 인권의 기초이념」, 『범한철학』 Vol.26, 범한철학회, 2002.
12. 陳啓智, 「儒家의 人權思想」, 『퇴계학』 Vol.12 No.1, 안동대학교, 2001.
13. 조경란, 「유교·민족·인권」, 『철학연구』 Vol.53 No.1, 철학연구회, 2001.
14. 이동인, 「율곡의 사회개혁사상과 인권」, 『동양사회사상』 Vol.13, 동양사회사상학회, 2006.
15. 김용현, 「정약용의 민본의식과 민권의식」, 『퇴계학』 Vol.12 No.1, 안동대학교, 2001.
16. 김승혜, 「한국유교 연구의 새 지평」, 『한국종교연구』 Vol.4, 서강대학교 종교연구소, 2002.
17. 이동희, 「동아시아적 컨텍스트와 인권 그리고 보편윤리」, 『사회와 철학』 Vol.-No.5,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3.
18. 김덕균, 「당견의 남녀평등론을 통해본 유가의 인권사상」, 『양명학』 No.11, 한국양명학회, 2004.
19. 李雲九, 「한자문화권에 있어서 남녀 평등의식의 변천」, 『人文科學』 No.23,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20. 岡本光生, 『圖解 『論語』 の知慧を身につける本』, 東京: 中經出版, 1999.
21. 정비석, 『退溪逸話選』, 퇴계학연구원, 1977.
22. 강재철, 「退溪先生逸話資料選」, 『국문학논집』 제19집, 檀國大學校國語國文學科, 2003.

V. 근대기 번역어=일본한어로서의 ‘인권’ 개념과 동아시아

1. 丸山眞男加藤周一, 『번역과 일본의 근대』, 임성모 옮김, 서울: 이산, 2003.
2. 최경옥, 『번역과 일본의 근대』, 서울: 살림, 2005.
3. 야나부 아키라, 「권리」, 『번역어 성립 사정』, 서해영 옮김, 서울: 일빛, 2003.
4. 柳父 章, 『翻譯語成立事情』, 東京: 岩波書店, 1996.
5. 鈴木修次, 「三權分立にまつわる用語」, 『日本漢語と中國-漢字文化圏の近代化』, 東京: 中央公論社, 1981.
6. 石塚正英·柴田隆行, 「人權·人間の權利」, 『哲學·思想翻譯語事典』, 東京: 論創社, 2004.
7. 陳志尙, 「儒家傳統 中國人權」, 『“中國傳統文化與21世紀” 國際學術研討論會 論文集』, 中華書庫編輯部 編, 北京: 中華書局, 2002.
8. 夏勇, 『中國人權哲學』, 北京: 三聯書店, 2004.
9. 山室信一, 「アジアにおける思想連鎖」, 『思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基軸・連鎖・投企』, 東京: 岩波書店, 2002.

10. 加藤周一, 『明治初期の翻譯』, 日本近代思想大系15, 『翻譯の思想』, 東京: 岩波書店, 1991.
11. 有田和夫, 『“近代”のかたち—中國と日本—』, 東京: 研文出版, 2004.
12. 佐藤愼一, 『近代中國人の知識人と文明』,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6.
13. Wm. 시어도어 드 배리, 『중국의 ‘자유’ 전통』 (원제: The Liberal Tradition in China), 표정훈 옮김, 서울: 이산, 1998.
14. 後藤靖, 『自由民權』, 東京: 中央公論社, 1972.
15. 高坂史郎, 『近代という躰』, 京都: ナカニシヤ出版, 1997.
16. 정용화, 「유교와 인권: 유길준의 ‘인민의 권리’론」, 『한국정치학회보』 Vol.33. -No.4, 한국정치학회, 1999.

<Abstract>

Choi, Jae-Mok(Department of Philosophy, Yeungnam University)

This study i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for the law department' subject 'Confucianism and Human Rights' of Yeungnam University. Human Rights, in general, are separated as six parts; personal right, political right, civil right, economical right, social right, cultural right. But, we have to ask how the Human Rights are in Confucianism. The latest, in our society, up to now, frequently have discussed about Confucianism and Human Rights, because of the point at issue what is the Asian values, the Renaissance of Confucianism by economic growth of East Asia society. In the law department of our University hasn't the regular text 'Confucianism and Human Rights'. Then, my this study will discuss about a lesson schedule and practical contents for the teaching 'Confucianism and Human Rights'. And, here, as can as, I will try to introduce a many basic materials and bibliography for the teaching, such as the Analects(『論語』) of Kongzu(孔子), the Mengzu(『孟子』) etc.